

미국 수입·수출물가: 수입 1.1%·수출 2.2%로 예상 크게 상회, 비연료도 꾸준히 상승

2026.10.16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9월 미국 수입물가는 전월비 +1.1%로 시장 예상 +0.8%를 0.3%포인트 웃돌았고, 수출물가는 +2.2%로 예상 +1.0%를 1.2%포인트나 웃돌았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통화정책의 핵심 제약으로 작동하는 현재 국면에서 이번 결과는 명백한 악재이며,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인상 논거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보강하는 방향이다.

9월 미국 교역가격, 수입·수출 모두 예상치 크게 상회

교역가격지수는 미국이 해외에서 사오고 해외에 내다파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입물가는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 압력을, 수출물가는 미국산 상품이 해외에서 받는 가격을 가늠하게 해준다. 직전 달인 8월에는 연료 가격이 오히려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 상승폭을 깎아먹었는데도 비연료 품목이 꾸준히 올라 비용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번 9월 수치는 그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과, 여기에 더해 에너지 가격까지 다시 치솟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발표에서 헤드라인 상승폭을 키운 주된 요인은 연료다. 수입 연료 가격이 +4.8% 뛰면서 헤드라인 가격의 대부분을 만들었는데, 이 항목은 7월 -6.8%, 8월 -0.2%, 9월 +4.8%로 불과 석 달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진폭이 워낙 커서 이것만으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비연료 수입물가도 +0.7%, 석유 제외 기준 +0.8%, 식품·연료를 모두 제외한 기준으로도 +0.7%로 세 계열이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202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달도 하락한 적이 없다. 비연료 전년동월비는 +6.0%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즉 이번 수치는 크기는 연료가 만들었지만, 상승의 방향과 지속성은 비연료가 받치는 이중 구조로 읽어야 한다. 수출물가도 비농산물 원자재와 수출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며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정책 측면에서 이번 자료는 현재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Fed의 입장을 흔들 요인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다만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기까지는 통상 한두 달에서 석 달가량의 시차가 있고 기업의 재고·환헤지가 그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어, 이번 수치가 바로 다음 달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편 최근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금리 하락 흐름을 '통화정책 완화 기대'로 해석하는 시각은 교역가격이 전방위로 오른 이번 결과와는 맞지 않으며, 성장 둔화 우려나 안전자산 수요 쪽에서 설명을 찾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앞으로는 비연료 수입물가가 10 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유가·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다시 하락 전환하는지, 그리고 11~12 월 소비자물가 코어재화 항목에 이번 비용 압력이 실제로 전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9 월 수지 자체도 향후 3 개월 내 수정될 수 있는 잠정치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10-16 (이번)	9 월 미국 수입물가와 수출물가가 나란히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며 올라, 현재 인플레이션이 주된 제약인 국면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논거를 보강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2026-09-16	8 월 미국 수입물가는 유가 도움 없이 넘게 올랐다. 헤드라인이 전월비 -0.3%에서 +0.7%로 반전했지만 상승을 만든 건 연료가 아니라 비연료였고(-0.1% 대 +0.8%), 이는 원자재부터 소비자재까지 폭넓게 번진 수입발 코어재화 비용 압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2026-08-18	7 월 미국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 월도 개정치 기준 -0.3%였으니 표면적으로는 물가 압력이 누그러지는 그림이다. 하지만 이 하락은 사실상 연료 가격 한 항목에서 비롯됐다. 연료 수입물가가 7.2% 급락했는데, 이는 5 월에 12.1% 급등했던 것이 되돌려진 결과에 가깝다. 유가 요인을 걷어내고 나면 그림이
2026-07-17	월간 수입물가 모멘텀이 뚜렷이 둔화(+2.1% → +0.3%)한 가운데 수출은 첫 월간 하락(-0.6%)을 기록했으나, YoY 기저효과(Import +7.1%, Export +10.2%)는 여전히 높아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점점 통과 신호와 구조적 코어재화 강세의 구분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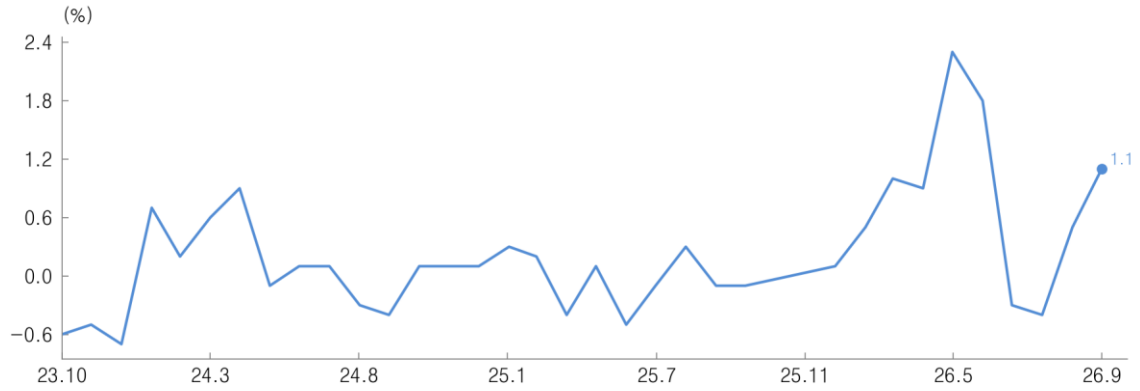
9 월 미국 수입·수출물가 — 부문별 변화

지표	9 월 전월비	8 월 전월비	전년동월대비	맥락
전체 수입물가	+1.1%	+0.5%(수정)	+8.1%	2022 년 7 월 이후 최대 전년비 상승
수입 연료	+4.8%	-0.2%(수정)	+34.5%	7 월 -6.8%→8 월 -0.2%→9 월 급반전
수입 비연료	+0.7%	+0.6%(수정)	+6.0%	2025 년 8 월 이후 무하락, 2022 년 4 월 이후 최대
전체 수출물가	+2.2%	+1.2%(수정)	+11.6%	2022 년 7 월 이후 최대 전년비 상승
수출 농산물	+2.6%	+0.4%(수정)	+9.0%	2022 년 11 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
수출 비농산물	+2.1%	+1.3%(수정)	+11.8%	산업용품·자본재 주도
수입 항공여객운임	+12.6%	-11.2%	+11.8%	7·8 월 두 자릿수 하락 후 급반등
수출 항공여객운임	-1.7%	-4.3%	+5.2%	2 개월 연속 하락 지속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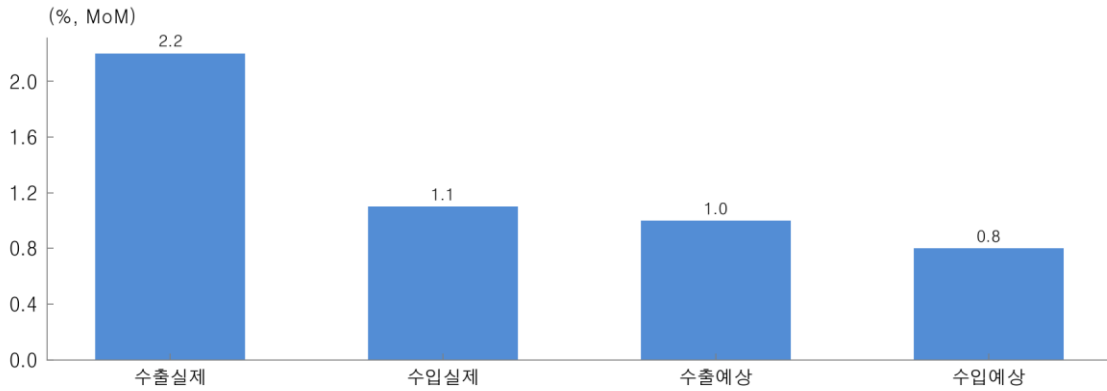
지표	값
수출 전월대비(%)	2.2
수입물가 전월대비(%)	1.1

미국 수입물가(전월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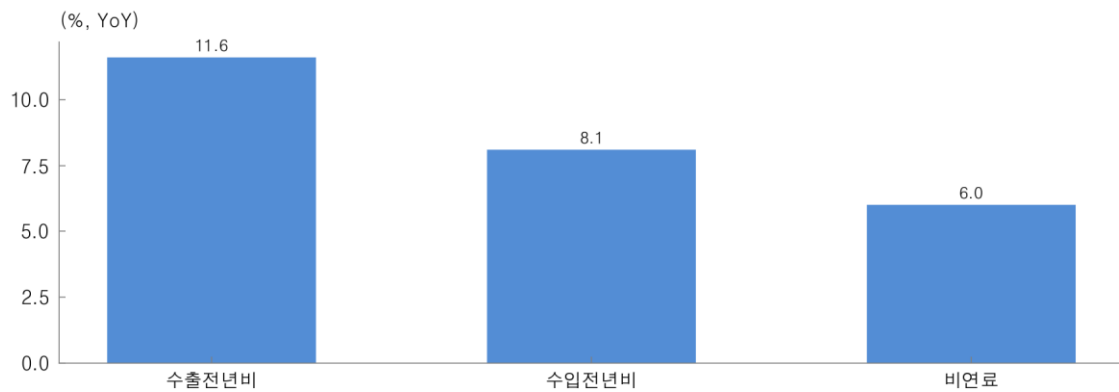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9월 수입·수출물가 실제치 vs 시장 예상치 (전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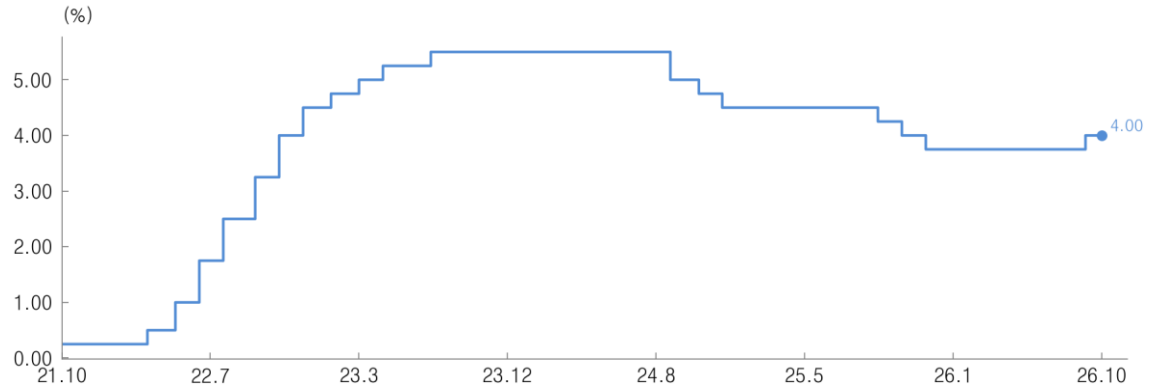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전년동월비 인플레이션 레짐 전환: 수입·비연료·수출물가 (%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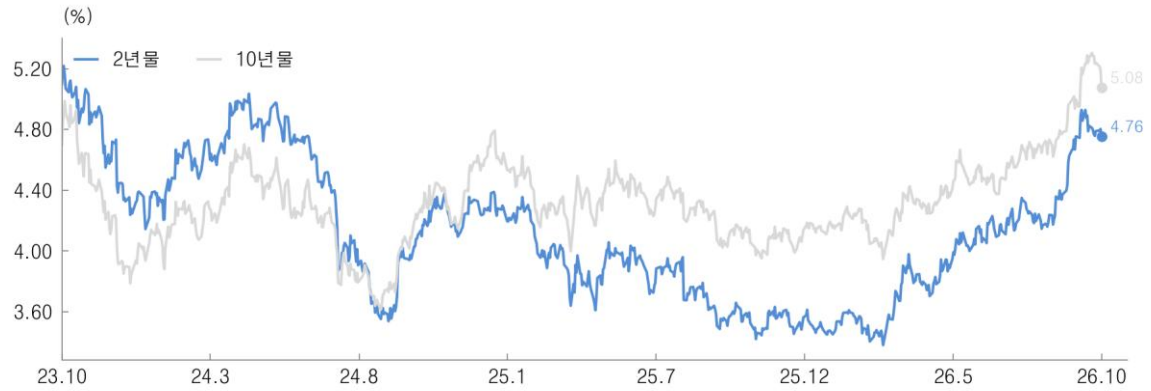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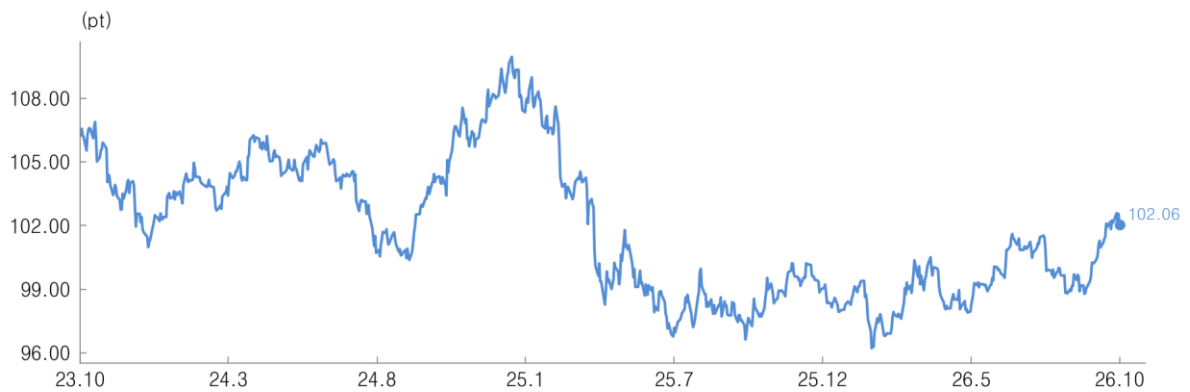
자료: CEIC(2026-10-15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